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오늘부터 다채로운 성탄절 예배와 행사

■ 성탄축하찬양예배

19일(주일) 오후 5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찬양대 (지휘 허희철 집사, 오르간 안진희, 피아노 양경실) 주관으로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드린다. 이 찬양예배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롤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 성탄축하전야예배

24일(금) 오후 6시

24일(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온 가족과 함께 1층 예배실에서 찬양 가득한 성탄절 전야를 보낼 수 있다. 오후 6시부터는 필그림찬양대가 이끄는 찬양의 시간이 펼쳐지며 오후 7시부터는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성탄절 이브를 찬양과 율동, 성서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 성탄절 새벽예배

25일(토) 오전 5시

25일(토) 새벽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탄절 새벽 예배는 평소와는 달리 5시에 드린다.

■ 성탄절 예배

25일(토) 오전 9, 11시

성탄절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가족 예배로 두 차례에 걸쳐 드린다. 교회학교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2000년 1월 1일 0시

송구영신예배가 새 천년의 해가 동트는 2000년 1월 1일 0시에 드려진다. 이 예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 오는 날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맞이하게 된다.

1999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 모든 예배실은 소동하게 되므로 성도들은 30분 전에 입장하여 기도로 준비할 것이 요망된다.

용석범 교육 목사 청빙 중등부 지도 맡기로



용석범 목사가 새로 청빙됐다. 용 목사는 1967년 생으로 이세란사모와의 사이에 1녀가 있다.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장신 신대원, 장신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98년 서울 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대광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사역 중이다. 용 목사는 중등부를 지도하게 된다.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 김선일 교수 새로 초빙



임마누엘찬양대(III부 예배 담당) 지휘자로 김선일 교수가 초빙됐다. 김 교수는 1945년 생으로 이현주 집사와의 사이에 1남 2녀가

있다.

한양대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및 시립음악원을 졸업한 김교수는 동아콩쿨을 비롯한 많은 입상 경력과 KBS를 비롯한 각종 음악회 수백 여회 출연했으며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연주 및 김선일 애창가곡집 CD 출판 그리고 라보엠, 춘희 등 오페라 50여 편에 출연했다.

현재 충북서원대학교(구 청주사범) 음악과 교수로 67년 연동교회에서 수세 후 최근에는 수표교감리교회에서 13년 간 지휘를 하면서 권사로 교회를 섬겨왔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임명

13개 부서 282명

오늘 I·II·III부 예배 시 2000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갖는다.

I부 예배 시에는 고등·대학·청년·새가족부 교사, II부 예배엔 유년·초등·중등·장년·사랑·새가정 교사, III부 예배엔 유아·유치·소망 교사가 각각 임명을 받게 된다. 오늘 임명을 받는 교사는 13개 교회학교의 총 281명이다. <관련기사 4면>

오늘 임명식을 마친 교사들은 이달 말까지 교회학교별로 총회를 갖는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는 갓 태어난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성도가 자기 연령에 해당하는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

돼 있다.

또한 새가족의 교회적응과 신앙성숙을 돕는 새가족부,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새가정부도 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육목적은 ① 거듭난 인간 ② 성숙한 신자 ③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기독교교도소 국회 법사위 통과

지난 15일 국회법사위는 민영교도소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이사장 이종윤 목사는 이 법안이 금년 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복된 성탄절

성탄절 메시지

금세기 마지막 성탄절이다. 실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의 한 주일 후가 새해 첫 날이 되므로 20세기 마지막 성탄절이면서 새 천년을 여는 성탄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탄절은 역사의 출발이고 끝이며 중심이고 의미다.

★ 성탄절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거리를 밝히는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나 휘황찬란한 트리 그리고 푸짐한 선물꾸러미를 연상케 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 하지는 않는다. 따뜻한 온정이 옹골감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 하지도 않는다. 성탄절은 큰 기쁨을 받아 해방과 변화가 일어난 날이므로 복된 날이라 한다. 천군과 천사가 "오늘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한 날이다. 야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큰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했다.

★ 성탄절은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위로와 자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를 이루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과 북·동과 서가 하나를 이루었다.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갈라진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시니 이날은 복된 날이다.

★ 성탄절은 구원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우리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잔광 속에서 살고 있다. 성육신 없는 부활은 초자연적 신화에 불과할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없는 성탄은 감상적 동화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과 성탄은 생의 방향을 정해 주고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준다. 낳으신 아기는 죽기 위해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셨기 때문에 이날은 복된 날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놀라운 천사들의 찬송이 저무는 이 한 해를 의미있게 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여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오늘도 목이 터지도록 부르면서 구유에 나신 주님을 영접하자.



이종운 목사

성탄절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천군과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한 날이다.

성탄절은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갈라진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셨다.

성탄절은 구원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예수는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

성탄축하음악예배를 드리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신용식(집사,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금세기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브리엘찬양대에서 성탄 축하음악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브리엘찬양대는 허희철 집사님의 지휘 아래 10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귀한 시간과 몸을 드려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우리 찬양대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캐롤송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에 찬양을 통해 진한 감동을 받으며 믿음의 설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을 경배하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과 함께 계시도다.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소리치라
그리고 숲의 모든 나무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
들판과 그곳의 모든 것들이여 찬송하라
그들은 주님 앞에서 노래할 것이라
이는 그분이 오셨음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과 함께 계시도다"

이러한 내용으로 예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찬양,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천사와 목자들을 통한 은혜 빛이 오심을 찬양하는 순서들로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성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 컬럼

"기쁘다 구주오셨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며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도덕이며 종교이며 상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되 섬기러 왔노라 하셨으니 이것은 신비다.

높아질 줄만 알고 받기만을 좋아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주는 삶을 살 때 비천한 말과 유 위에 나신 야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인간이 신에게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다. 이 절기를 너무 미천하여 채 눈에 띄지도 않던 우리 주변의 술한 소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찾아가는 계절로 삼자. 낮은 곳으로 비강해 오신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섬김과 용서가 있는 성탄절을 만들어 모두에게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자.

★ 성탄절 단상 ★

성육신... 그리고 확증된 사랑

전신일(고등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이천년 전, 이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분이 이땅 가운데서도 가장 누추한 마굿간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 죄로 인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골과 피 한방울까지도 다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즉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일지도 모릅니다.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가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20세기 마지막 주님 오신 날을 맞아, 과연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립니다

이은욱(권사)

작은 불빛들이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다시 밝혀져 오곤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1900년대의 마지막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그간 나를 스치고 지나간 많은 그날들의 의미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 첫번째 기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부산 피난지에서 맞은 성탄절이다. 아마도 미군들이 교회에 선물을 잔뜩 가져다 주었던듯 처음 보는 예쁜 노트며 공, 자 등 학용품들을 가득 안고 좋아하던 모습이다.

그후 서울에 올라와 6년 동안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주일학교에서 보낸 성탄절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12월이 되면 저녁마다 모여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연할 연극 연습했는데 어느 날에는 집에 돌아가려고 밖에 나와 보면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어 발목까지 차는 눈길을 친구들과 걸어가던 일도 기억난다. 어느 해엔가는 천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머니께서 한복 속치마를 뜯어 만들어 주신 천사 옷을 입고 환상적 기분을 가지기도 했다. 그때 그 순수한 기쁨으로 맞았던 성탄절이 지금 너무나도 그리다.

1991년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성탄절을 보내야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80여 명이 모이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마다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성경암송도 하고 게임도 하였다. 그때 어느 여집사님이 해오신 육개장이 어찌나 맛이 있었는지... 무엇보다 교회 식구가 마치 모두 한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냈던 날들이었다. 지금도 그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련히 그리워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1900년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지나간 날들의 아름다운 기억처럼 올해 성탄절도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들로 장식하고 싶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벌어졌던 “빈방 없음”의 비극이 없도록 이제 내 마음의 방을 진정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성탄 절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새로운 천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전신일(고등부)

유년부 시절, 성탄절 새벽이면 찬양대원이 되어 천사의 기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송을 부르고 다녔다. 밤새 불을 밝히고 기다리던 성도들의 집에서 대접받은 따뜻한 음식으로 잠시나마 몸을 녹이고 때론 선물도 받아 오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요즈음에는 주거환경이 변해서인지 새벽 성가 같은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들의 정서도 변해서 성탄절을 공휴일쯤으로 생각하는 세태가 만연한 것 같다. 그래도 이 계절엔 찬양대를 통해서 헨델의 메시아를 많이 듣게 되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메시아의 곡들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벽찬 감동이 밀려온다. 특히 절정에 이르러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때면 초연 시 청중이 일어났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온몸에 흐르는 전율로 자연스레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헨델이 천재적인 음악가라서 이런 곡이 나왔다고보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같은 곡이 탄생되었다고 본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창세기 이후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같은 말씀에 입각해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에 관해 웅대하고 장엄한 음악으로 영감있게 표현한 메시아를 감상하면서 온 세상 전 인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주간성경공부” 마무리

26일 마감 ... 연초 시상식

‘1년 1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 올해 마지막 문제지가 오늘 배포된다.

오늘 배부된 문제지를 포함하여 올해 배부된 주간성경공부 모든 문제지의 점수 마감은 다음 주일(26일) 찬양예배 후이다.

주간성경공부는 문제를 풀면서 한 해 동안 친구약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간 ‘주간성경공부’의 참여도와 채점 점수를 계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성도에게 내년 초 찬양예배 때 시상할 예정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40대를 불혹의 나이라 칭하며 웅만한 유혹이나 시험에서 초연할 수 있는 세대로 부르지 않았던가. 무릇 언젠가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러므로 선택을 바로 해야만 하는데 우리 믿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만 서면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다.

40대 문턱을 성큼 넘어선 우리 루디아전도회의 강점은 아마도 세상의 갖은 유혹과 시험을 가장 잘 이겨내고 오로지 혈기 넘쳐 서두르지 않고 아직 인생의 황혼

을 감지하는 무기력이 없으니 모든 일은 그 원숙함이 절정에 달하고 사리 판단은 밝아 리를 깊이 내리면 과연 그렇게 좋은 선택이 어떤 인생에 존재할까.

루디아전도회의 2000년은 이사가 30장에 나오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유대 민족인 앗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애굽을 찾아가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와 의논하며 어떠한 역경과 유혹에서도 승리하며 초지일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신실한 전도회가 되기를 노력할 것이다.

루디아전도회의 2000년 불혹의 나이, 최선의 선택

박미혜(루디아전도회장)

서 좋으리라. 눈에 보이는대로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뿌

2000년도 위원회 조직

■ 교육위원회

지 도 이성득 목사 위원장 김태기 장로
서 기 하영수 장로 회 계 서문석 장로
위 원 김광신 장로, 정병무 장로, 윤봉준 장로, 왕경래 장로

위원회	지 도	위원장	서 기	회 계
선 교 위 원 회	이규정 목사	홍정호 장로	박철훈장로	김영준 장로
구 제 위 원 회	지혜영전도사	김광신 장로	이완형 장로	김상철 장로
관 리 위 원 회	—	박두호 장로	오광환 집사	오형철 집사
동 산 위 원 회	—	윤봉준 장로	이영기 장로	박두호 장로
인 사 위 원 회	—	노문환 장로	하영수 장로	서문석 장로
출 판 국	이성득 목사	김광신 장로	—	—
장 학 회	—	김상철 장로	김태기 장로	이완형 장로
교회개신연구원	이성득 목사	하영수 장로	—	—
비 전 2020	정윤돈 목사	이번생 장로	—	—

교회학교	지도	부장	부감
유 아 부	조대영 전도사	서문석 장로	이복규 집사, 최일춘 권사
유 처 부	최지혜 전도사	노송성 장로	이계홍 집사, 김숙자 권사
유 년 부	이영희 전도사	김영준 장로	조정석 집사, 이해순 권사
초 등 부	신미숙 전도사	하영수 장로	이상호 집사, 이은희 권사
중 등 부	용석범 목사	최종시 장로	홍성주 집사, 김윤자 권사
고 등 부	이성득 목사	김광신 장로	우지원 집사, 권순단 권사
대 학 부	정윤돈 목사	이완형 장로	임상현 집사, 이은옥 권사
청 년 부	고경선 목사 · 이만열 전도사	정병무 장로	김인수 집사, 김예환 권사
장 년 부	김영환 목사	이번생 장로	황정옥 집사, 정연택 권사
소 망 부	우심화 목사	왕경래 장로	신순우 집사, 윤갑숙 권사
사 랑 부	이상진 목사 · 정성국 전도사	윤봉준 장로	이승우 집사, 남태순 권사
새 가족부	지혜영 전도사	민순구 장로	김세제 집사, 이정희 권사
새 가정부	이규정 목사	김태기 장로	김형택 집사, 최양혜 권사

■ 동정 ■

- * 소원십 성도(3교구 소병국 성도, 심화숙 권사 아들, 대학부)는 14일(화) 입대했다.
- * 이승준 · 최문주 집사(4교구) 가정은 14일(화) 득남했다.
- * 마상수 집사(3교구)는 BK사업추진공로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 오늘 점심식사는 나점균 성도 · 최근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건축위원회는 20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교회학교 소식 ■

- * 소망부에서는 찬양시간을 인도할 봉사자를 찾고 있다.

남선교회 · 여전도회 지도 교역자

- 빌립 · 도르가 · 스테반회 고경선 목사
- 안드레 · 베드로 · 루디아 · 뱌뵈 정윤돈 목사
- 바울 · 엘리야 · 마리아 · 에스더 이규정 목사
- 모세 · 아브라함 · 에스더 · 사라 이성득 목사
- 제1·2권사회 지혜영 전도사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 ▶ 기독교방송(HLKX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임명받는 2000년도 교사들과 교회학교를 위해
2. 연말연시 교회 행사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
새 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